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 奉 誠
意 仕 實

漁港消息

[月刊] 第138號

THE FISHING PORT NEWS

발행인 孫井植 特殊法人 韓國漁港協會
편집인 金在克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03번지
인쇄인 TEL. 3673-2851~3
ISSN 1227-7053 568-6651~2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e-mail: kfpa8769@chollian.net

친수공간 확보 등 종합기능 어항으로 정비

해양수산부 수산진흥종합대책안 마련

해양수산부는 어항기능을 다양화하여 종합기능 어항으로 정비하는 등 올해부터 오는 2004년까지 어항개발에 9,783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수산진흥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어항의 기본시설 미비로 어선의 안전수용과 생산기반에 취약하며 어항기능의 단순화로 어항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 지정된 어항의 조기완공과 유통·가공시설, 문화 복지 및 관광 휴게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자원관리형 어업의 중심지로서 어항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어항을 중심으로 환경보전 및 친수공간의 확보와

방파제 등 구조물을 환경친화형으로 시설하여 쾌적하고 환경보전적인 어항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2004년까지 총 9,783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 어항을 자원관리형 어업의 지원기지로 개발하는 등 신해양질서 체계에 부응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항기능 다양화를 위한 종합기능어항으로 정비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배후 육상시설을 중심으로 어항기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최적모델 개발 정비계획을 수립,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정비 확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개발 중인 1·3종 88개 지정어항은 2005년까지 완공, 신규지정 17개 어항은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개발 중인 306개 2종어항은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2002년까지 29개 1·3종 어항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정부주도의 어항개발에 따라 민간자본 유치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어항개발을 종합개발 방식으로 전환, 기본시설은 정부에서 계속 개발하고 배후 육상기능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수협 등이 개발하게 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나가기로 했다.

물양장, 방파제 등 어항관련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지역 경제발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 본격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들 신규어항 개발사업과는 별도로 내년 어항건설사업에 총 1,927억원을 들여 물양장·방파제 시설 등을 확충키로 했다.

관광·유통 등 다기능어항 건설 추진해야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는 우리나라 해양산업이 국가적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KMI는 '21세기 해양수산정책 장기구상과 KMI 역할' 보고서에서 해양수산 장기발전의 목표와 기본과제, 21세기 해양수산 비전과 부문별 발전모습·발전전략 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발전전략 중 특히 어항어촌 부문에서는 어항의 완공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완공 위주의 사업을 실시하

고 어항기능의 복합화에 따른 다기능 어항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어항어촌 정비의 기본구상과 발전방향에서 어항종합도시는 어업종합기지의 정비와 어촌 정주권 재개발을 추진하여 수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항도시를 어항 및 관련시설의 충실화와 함께 수산업을 핵으로 한 산업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중핵도시로 정비하여 새로운 수산도시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없이 미래지향적이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어항을 개발해 내기란 요원한 일일 뿐더러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의 가능성도 없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은 물론이다.

북한 경비정의 월선으로 끝내 총격전이 벌어져 다수의 사상자까지 발생한 이번 서해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단지 어민만이 아니었다. 횟집 숙박업소 등 다수의 관광 관련업소 피해자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이른바 서해 5도에 주말이면 40~50명의 낚시꾼들과 보통 200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다 그리고 어항이 어느새 이렇게 우리의 레저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항의 기능은 방파제·물양장 등 기본시설 정도였다. 따라서 어항의 다양한 기능과 이용의 활성화가 미흡했음을 불문가지였다.

이를 시정하고 제대로 된 어항 어촌 발전을 위해 한국어항협회는 정부 용역사업으로 '어항기능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백령도 연평도에까지 관광객이 몰릴만큼 바다가 친수공간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데 고작 어항은 어선 접안이나 어획물 양류 등 수산업 지원기능 정도로 국한돼 개발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즉, 어항이 어업의 중심기지인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여기에 어촌지역의 교통·경제·관광 중심지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체계있는 연구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하고 생산성 있는 어항 배후공간의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육상 배후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어항기능 증진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어촌 지역 발전과 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하자는 것이 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종래 어항의 단순한 기능에서 탈피, 배후시설 및 용도별 부지 이용계획까지 수립하여 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치한다면 어항이 하나의 거대한 전문화된 단지로 우뚝 서 어촌발전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육지 소규모항 개발 해양수산부에서 관장

육지 소규모항의 개발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게 됐다.

지난 5월 24일 대통령령 제 16,36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기관에 대한 행정기구 개편령' 및 해양수산부령 제 12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기관에 대한 행정기구 개편령'에 육지 소규모항 개발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이관받을 계획이다.

항의 개발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던 육지 소규모항 개발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맡게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 행정자치부로부터 육지 소규모항 개발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이관받을 계획이다.

있을 것이다.

현재 협회에서는 이 연구의 대상 어항을 기본시설이 이미 완공됐거나 완공단계에 있는 어항 가운데 입지여건이 훌륭하거나 어촌개발 측면에서 발전 잠재력이 있는 10개 항을 꼽아두고 있다.

한편, 이러한 어항기능 활성화 계획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항어촌에 대한 정책 방향도 이에 부합되도록 설정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어항이 국제경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이란 전제하에 미래사회에서 최고급 해양환경·위락·휴양·교육·문화·레저 산업의 거점기능을 겸비하여 첨단산업사회와 조화를 이룸으로써 산업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기간시설로 개발 이용하겠다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는 수산진흥종합대책안을 수립, 골격이 거의 굳어져 가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꼭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어항정비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어항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다.

현재의 완공항이라고 하는 어항은 어디까지나 어선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계획상의 완공항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여건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다기능 종합시설의 국민적 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항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의 완공항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항예산의 경우 2004년까지 6조원의 수산예산 중 겨우 16%에 머물고 있다. 이와같은 어항예산으로는 연구계획과 어항어촌의 종합발전은 요원한 길이 될 뿐이다.

굳이 일본이 수산예산의 62% 이상을 어항정비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수산예산을 시혜성 혹은 이전적 보상적 경비로 지원하고 있는 지금의 예산 구조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수산인프라 구축 즉 어항건설 분야의 투자비율을 높여야만 우리나라 수산진흥의 모든 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음을 너무도 당연한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

수산진흥종합
대책에
바란다

수산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를
수립
추진과
어항정비
5개년
계획

바다환경보호

깨끗이 가꾼 바다!

몰래버린 밧줄하나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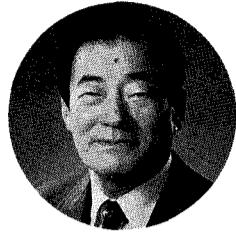
풍요로운 바다목장!

바다생명 단축한다

동

정

‘제4회 바다의 날’ 행사 개최



鄭相千 海洋水产部長官

▲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31일 마산항 제5부두에서 제4회 바다의 날 행사를 개최, 6월 11일에는 우파웨이 주한 중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해양수산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

▲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5월 31일 마산항 제5부두에서 열린 제4회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 6월 3일에는 협회 회의실에서 ‘어항기능 및 이용활성화 계획 연구’에 대한 정부용역사업과 관련 제2차 연구위원회를 개최, 16일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수산진흥종합대책회의에 참석 어항시설예산의 확대와 기존 완공항의 일제정비를 위한 어항정비 5개년계획 수립을 촉구, 18일에는 자민련 정책 위원회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회에 참석, 19일에는 만해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참석.

▲ 최상옥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6월 1일 제2건국운동 주민설명회에 참석, 7일에는 광주시 실업극복대책위원회 간담회에 참석, 16일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제109차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개회식에 참석, 17일에는 한국시립중고교 법인협의회 이사회에 참석.

▲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6월 4일 광주매일 창사 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 5일에는 범죄예방선도위원회 주관 백일장 시상식에 참석, 7일에는 광주시 실업극복대책위원회 간담회에 참석, 13일에는 광주농고 총동창회를 개최, 17일에는 광주은행 정기이사회에 참석.

▲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6월 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기관장 조찬간담회에 참석, 3일에는 대한건설협회 회장단회의에 참석, 7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및 지역협의회장 합동회의에 참석, 15일에는 전남도지사 초청 전남안전대책회의에 참석.

▲ 조남숙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6월 1일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 2일에는 대한민국 현정회 운영위원회에 참석, 6일에는 국립묘지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7일에는 필리핀 대통령을 위한 오찬간담회에 참석, 14일에는 한·일 친선협회중앙회 회의에 참석, 18일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열린 공정계약 질서확립 결의대회에 참석, 24일에는 경영자총협회 이사

회에 참석.

▲ 황금주 동광건설주식회사 사장은 6월 2일 인증 평택 간도로공사 현장에 출장 이어 여주 통합상수관공사 현장에 출장, 10일에는 대전 매봉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 출장.

▲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6월 1일 수원 매송인터체인저공사 현장에 출장, 11일에는 서귀포 도로포장공사 현장에 출장.

▲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6월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및 지역협의회장 합동회의에 참석, 24일에는 대한매일 주관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백범 김구 전집 출판기념회에 참석.

▲ 송재성 주식회사 성호종합건설 회장은 6월 8일 여수공사 현장에 출장.

▲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 김종태 △ 해운물류국장 정이기 (6월 11일)

△ 어업지원국장 박덕배 △ 항만국장 이동원 △ 국립수산진흥원 어장환경부장 김학균 (5월 26일) △ 공보관 양병관 △ 어업지원국 국제협력심의관 최장현 △ 국립수산물검사소장 김창남 (6월 1일)

□ 과장급 (부이사관·서기관) △ 안전관리관실 항로표지담당관 박재현 △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 유병수 △ 정보화담당관 유상정 △ 해양정책국 해양환경과장 임광수

△ 해양보전과장 이용수 △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장 김덕일 △ 연안해운과장 나승렬 △ 어업지원국 어업정책과장 김영규 △ 자원관리과장 우예종 △ 어업지도과장 손재화 △ 양식개발과장 심호진 △ 원양어업과장 손부일 △ 국제협력과장 박종국 △ 국립수산진흥원 총무과장 김익수 △ 기획관리과장 정도훈 △ 어장환경부 환경관리과장 이필용 △ 해양연구과장 김진영 △ 적조연구과장 조용철 △ 해운물류국 선원노정과장 권성원 △ 물류기획과장 이선준 △ 항만운영개선과장 정순석 △ 항만국 항만정책과장 박정천 △ 항만건설과장 박영우 △ 항만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재완 △ 민자계획과장 조종환 △ 기술안전과장 정민화 △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장 장맹수 △ 무역진흥과장 방기혁 △ 어촌어항과장 이전호 △ 어업기술인력과장 황수철 △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장 김복기 △ 서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민병훈 △ 자원환경과장 고태승 △ 남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직무대리)

성기만 △ 자원환경과장 손송정 △ 국립수산물검사소 서무과장 정재홍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과장 김태진 △ 수산관리과장 김병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과장 이장우 △ 수산관리과장 이금열 △ 인천항 건설사무소 항만공사과장 윤병구 △ 해양수산부 근무 문형근 (전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 참석.

▲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6월 1일 수원 매송인터체인저공사 현장에 출장, 11일에는 서귀포 도로포장공사 현장에 출장.

▲ 송재성 주식회사 성호종합건설 회장은 6월 8일 여수공사 현장에 출장.

▲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 김종태 △ 해운물류국장 정이기 (6월 11일)

△ 어업지원국장 박덕배 △ 항만국장 이동원 △ 국립수산진흥원 어장환경부장 김학균 (5월 26일) △ 공보관 양병관 △ 어업지원국 국제협력심의관 최장현 △ 국립수산물검사소장 김창남 (6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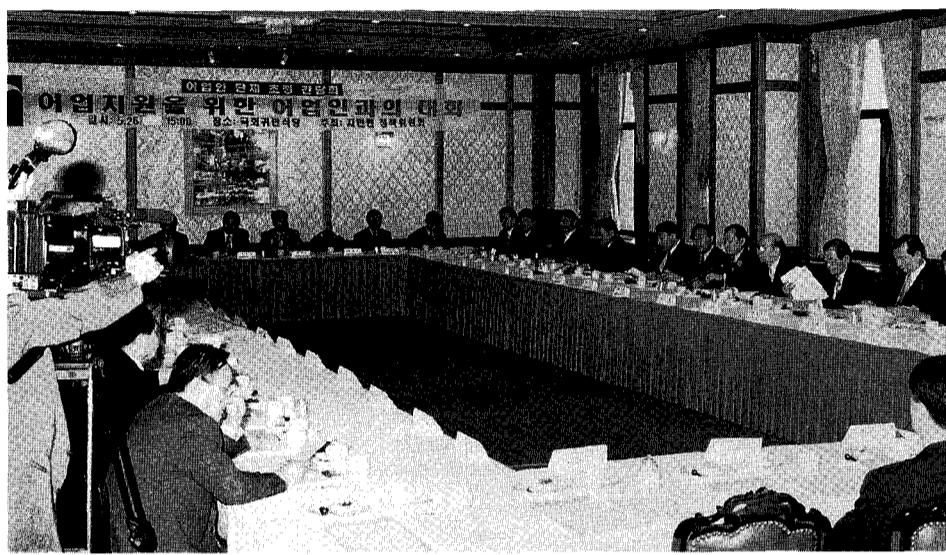
□ 과장급 (부이사관·서기관) △ 안전관리관실 항로표지담당관 박재현 △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 유병수 △ 정보화담당관 유상정 △ 해양정책국 해양환경과장 임광수

△ 해양보전과장 이용수 △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장 김덕일 △ 연안해운과장 나승렬 △ 어업지원국 어업정책과장 김영규 △ 자원관리과장 우예종 △ 어업지도과장 손재화 △ 양식개발과장 심호진 △ 원양어업과장 손부일 △ 국제협력과장 박종국 △ 국립수산진흥원 총무과장 김익수 △ 기획관리과장 정도훈 △ 어장환경부 환경관리과장 이필용 △ 해양연구과장 김진영 △ 적조연구과장 조용철 △ 해운물류국 선원노정과장 권성원 △ 물류기획과장 이선준 △ 항만운영개선과장 정순석 △ 항만국 항만정책과장 박정천 △ 항만건설과장 박영우 △ 항만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재완 △ 민자계획과장 조종환 △ 기술안전과장 정민화 △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장 장맹수 △ 무역진흥과장 방기혁 △ 어촌어항과장 이전호 △ 어업기술인력과장 황수철 △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장 김복기 △ 서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민병훈 △ 자원환경과장 고태승 △ 남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직무대리)

△ 해운물류국장 김종태 △ 기획관리실장 김창남 △ 항로표지담당관 박재현 △ 행정관리담당관 유병수 △ 정보화담당관 유상정 △ 해양정책국 해양환경과장 임광수 △ 해양보전과장 이용수 △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장 김덕일 △ 연안해운과장 나승렬 △ 어업지원국 어업정책과장 김영규 △ 자원관리과장 우예종 △ 어업지도과장 손재화 △ 양식개발과장 심호진 △ 원양어업과장 손부일 △ 국제협력과장 박종국 △ 국립수산진흥원 총무과장 김창남 (6월 1일)

△ 해운물류국장 김종태 △ 기획관리실장 김창남 △ 항로표지담당관 박재현 △ 행정관리담당관 유병수 △ 정보화담당관 유상정 △ 해양정책국 해양환경과장 임광수 △ 해양보전과장 이용수 △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장 김덕일 △ 연안해운과장 나승렬 △ 어업지원국 어업정책과장 김영규 △ 자원관리과장 우예종 △ 어업지도과장 손재화 △ 양식개발과장 심호진 △ 원양어업과장 손부일 △ 국제협력과장 박종국 △ 국립수산진흥원 총무과장 김창남 (6월 1일)

△ 해양보전과장 조복조 △ 김윤호 △ 고종안 △ 박신철 △ 연안계획과 김옥수 △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정홍 △ 박용문 △ 민장근 △ 윤종호 △ 김철성 △ 연안해운과 곽한호 △ 김인수 △ 김경희 △ 선원노정과 윤우용 △ 이상억 △ 이준용 △ 김병찬 △ 채진규 △ 물류기획과 김성범 △ 정복철 △ 장성식 △ 조한남 △ 김규진 △ 항만운영개선과 최준욱 △ 전재우 △ 강용석 △ 한홍교 △ 항만국 항만정책과 박경철 △ 엄태홍 △ 리원균 △ 연영진 △ 박영희 △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최익영 △ 정진혁 △ 유통가공과 강인구 △ 오대석 △ 무역진흥과 김삼순 △ 어촌어항과 정재춘 △ 노병환 △ 이경일 △ 신순균 △ 이남교 △ 박원길 △ 김시준 △ 어업기술인력과 황치영 △ 이용우 △ 김이운 △ 고길룡 △ 어업지원국 어업정책과 엄기두 △ 민병열 △ 김상규 △ 양동엽 △ 자원관리과 박준영 △ 유재구 △ 최용석 △ 박성우 △ 어업지도과 정태균 △ 강평현 △ 최철진 △ 강윤석 △ 양식개발과 최광용 △



■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지난 5월 26일 자민련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어업지원을 위한 어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 한국어항협회는 6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어항기능 및 이용활성화 계획 연구’에 대한 정부용역사업과 관련 제2차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 근무 이예후 (전 어업진흥국 어업지도과) △ 해양수산부 근무 김태영 (전 국립수산진흥원) △ 해양수산부 근무 윤분도 (국립수산진흥원 신현석) △ 김해광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 기획과 정락희) △ 국립해양조사원 임영태 △ 장홍열 (국립수산물검사소 오신기) △ 겸사과 심이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원태 △ 최기훈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강신열) △ 김기원 △ 김남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편재환)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김용태 △ 구양희 (공현동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안병옥) △ 선원선박과장 어명수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과장 양금철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장 박재호 △ 신항출장소장 박병화 △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장 김동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성항법중앙사무소장 함영달 △ 중앙판원 이상용 (6월 1일) △ 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 류재형 △ 어업지원국 국제협력과 라인철 (6월 7일) △ 한국선박안전기술원 박희열 (6월 10일)

■ 송상철씨 (주식회사 대한령물류프라자 부사장)의 딸 희수 양이 지난 6월 5일 공항터미널에서 화촉을 밝혔다.

■ 개인
▲ 김영남씨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 전무이사)
▲ 민일규씨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특별연구원)
▲ 손일수씨 (주식회사 건일엔지니어링 사장)
▲ 신영태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 장동익씨 (주식회사 이조운 회장)

어항청소 소식

선 명	월 일	지 역 (항)	선 장	연 락 처	
				외연도	최동립
어항 901호	7. 5~9 7. 13~17 7. 19~23	오천, 남당 격포		(휴대폰) 011-247-5592 (호출기) 012-247-5592	
어항 902호	7. 13~24	전장포, 원평	김성용	(휴대폰) 011-243-5590 (호출기) 012-953-5590	
어항 903호	7. 1~3 7. 12~15 7. 26~31	풍남 내발 녹동		(휴대폰) 011-230-5591 (호출기) 012-953-5591	
어항 904호	7. 5~10 7. 19~24	백전포, 신수 삼천포	박만성	(휴대폰) 011-232-5596 (호출기) 012-952-5596	
어항 905호	7. 5~10 7. 19~31	고현, 성포 통영, 비진도	하용만	(휴대폰) 011-247-5593 (호출기) 012-1166-1358	
어항 906호	7. 5~10 7. 19~24	죽산, 창포, 노문 죽변, 경정	김성훈	(휴대폰) 011-247-5594 (호출기) 012-909-5594	
어항 907호	7. 5~10 7. 19~24	거진, 대진, 아야진 목호, 억산, 장호	최일선	(휴대폰) 011-243-5597 (호출기) 012-953-5597	

어항공사 적산 기준 수립키로

해양수산부 혼선방지 위해 연말까지 확정

해양수산부는 지방발주청 별로 개별 시행되고 있는 적 산업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어항·항만공 사의 적산기준을 새로 수립 키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항·항만 등 해양시설사업의 공사비 산정기준이 지방 발주청 별로 달리 적용됨에 따른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해 기본시설 뿐만 아니라 공종 공법별로 새로운 적산기준을 마련, 적산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오는 8월까지 지방청별 기준 자료 수집을 통해 표준화된 적산기준 초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연말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안을 확정 짓기로 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이번 적산기준 개정에서 설계조건 이 다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수립, 실무 과정에서의 미비 점을 적극 보완하기로 했으며 일관된 적산기준 적용을 통해 적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기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항·항만공사 적산기준 개선방안을 보면 공사비 적산시 재료 할증량 계산방법을 단위 수량별로 단가에 할증 반영하는 일위대가표 산정방식으로 전환, 단순계산

법에 의한 공사비 누락을 막기로 했다.

또 발주청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호안불 럭 및 소파구조물의 톤급별

기중기 적용기준을 개선, 공사비 산정의 일관성을 기하기로 했으며 어항·항만 등 공사 성격별 부분적 기준의 상이점도 검토·개선키로 했다.

수산물 물류시설 대폭 확충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2004년까지 총 1조 327억원을 투자하여 대도시 등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수산물 종합판매장, 산지종합처리장 등 수산물 물류기반시설을 대거 확충, 수산물 유통체계를 신진화시키기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마련 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대책

안에 따르면 생산지 중심으로 이뤄진 수산물 유통체계를 생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 거점지역에 수산물 직거래를 위한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을 보면 우선 수산물 직거래 유

통경로 구축을 위해 오는 2004년까지 총 2,554억원을 들여 서울 광주 강릉 등 전국 거점도시에 수산물 물류 센터와 직거래 판매시설을 건설키로 했으며, 850억원으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2개소와 양식활어 물류센터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전국 주요 생산거점 20개소에 산지종합처리장을 건설, 생산지 가공기능을 확충키로 하고 총 600억원의 사업비를 오는 2004년까지 연차 투입키로 했으며 863억원으로 주요 산지에 산지 도매시장과 위판장 건설을 주진, 생산지 경매기능을 활성화시

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 도매시장의 유통개혁을 위해 1,945억원의 사업비를 확충,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직거래 판매시장 75개를 신설키로 했으며 어상자 보급, 냉동·냉장차량 보급 등에 모두 17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리고 2002년까지 1,47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천 남항 국제종합물류유동단지 내에 약 10만평 규모의 수산물가공단지를 건설, 동북아 국제수산물 거래의 정보센터 역할을 담당케할 예정이다.

매립지 하자책임 7년으로 연장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공유수면매립이 끝난 뒤 국가 등에 귀속되는 방파제 등 공공용 매립지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월에 개정된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하위법령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업무처 리 규정을 이같이 고치기로 했다.

1999년도 제1·3종 어항시설사업 추진현황

(6월 15일 현재, 단위 : 백만원)

항명	사업내용	공사금액	착공	실적	계획대비	시공회사
계	50개항 51건	118,371		%		
부산지방청 1		4,590				
대변항	동방파제 축조 50m	4,590	2.9	57.8	170	정남개발(주)
인천지방청 2		2,126				
율도항	방파제 상부 120m, 하부 74.6m	1,589	1.20	75	136	송우건설(주)
덕적도항	서방파제 보강 294m, 동방파제 보강 67m	537	6.17			영남건설(주)
여수지방청 7		15,413				
초도항	북방파제 상부 7m, 하부 66m, 하두부 1식	2,954	1.23	76.1	119	영진건설(주)
봉남항	서방파제 상부 172m, 하부 38m, 기부보강 1식, 도제 하부 81m	2,785	1.22	57	127	진화건설(주)
낭도항	방파제 상부 72m, 상부 60m, 하부 53m	2,501	1.22	57.1	95	(주)대아건설
시산항	남방파제 상부 35m, 상두부 1식, 물양장 축조 226m, 하부 7m, 호안 축조 128m	2,935	4.10	71	355	금광기업(주)
녹동항	물양장 상부 137m, 하부 80m, 선류장 축조 103m, 북방파제 보강 224m, 등대 1기	2,166	2.11	61.6	154	금광기업(주)
국동항	물양장 상부 132m, 하부 11m, 도선장 상부 20m, 호안 하부 120m, 선양장 하부 50m, 선착장 축조 80m	1,439	2.27	52.3	238	남화토건(주)
안도항	물양장 하부 106m	633	4.26	13.6	170	동림종합건설(주)
마산지방청 4		9,695				
지세포항	서방파제 하부 46m, 물양장 하부 50m, 파제제 보수 1식	3,157	2.10	41.9	140	정보건설산업(주)
매물도항	서방파제 상부 33m, 하부 25m	2,751	2.2	89.6	176	대농건설(주)
삼덕항	서방파제 상부 78m, 하부 57m, 동방파제 상부 1식, 등대 1기	2,467	2.9	56.3	137	우림종합건설(주)
구조화항	남방파제 하부 24m, 하두부 1식	1,320	2.9	98	196	우림종합건설(주)
울산지방청 1		649				
정자항	물양장 개축 61m, 상부 54m, 호안 축조 60m, 진입도로보수 85m, 북방파제 상부보강 1식(70.6m)	649	4.3	50.6	145	정남개발(주)
동해지방청 8		14,722				
수산항	북방파제 45m, 등대 1기	4,655	2.9	35.7	67	(주)삼양사
안목항	방파제 61m	4,387	2.11	83.6	279	신우건설(주)
장호항	방파제 50m, 등대 1기	3,165	3.24	38.4	137	(주)성호종합건설
임원항	동방파제 축조 23m	903	4.3	65	342	대동종합건설(주)
남애항	물양장 축조 35m, 선양장 축조 30m, 북·남방파제 보강 1식	653				
아야진항	물양장 하부 50m, 상부 100m, 호안 축조 86m, 파제벽 및 TTP보강 1식	415	5.24	5	100	(주)효성
거진항	물양장 하부 93m	546	6.14	0	0	성원건설(주)
대포항						
군산지방청 2		7,792				
어청도항	동방파제 상부 68m, 하부 10m	4,592	2.10	64	128	조홍공영(주)
말도항	물양장 상부 130m, 호안 490m, 선양장 상부 30m, 파제제 보강 1식, 유지준설 80,270m ²	3,200	5.27	8.1	101	(유)동성

앞서가는 신기술로

아름다운
해안공간을
창조
하겠습니다

代表理事事
技術士(港灣 및 海岸)
副會長
技術士(港灣 및 海岸)
副社長
技術士(土木施工, 建設安全)
專務理事事
技術士(港灣 및 海岸)
專務理事事
技術士(港灣 및 海岸)
常務事務
技術士(港灣 및 海岸)

丁 炳一
宋 光燮
金 成俊
吳 世汎
鄭 海雄
羅 基恒

理事事
技術士(港灣 및 海岸)
理事事
技術士(土質 및 基礎)
理事事
技術士(港灣 및 海岸, 土木構造)
部長
技術士(建設安全)
次長
技術士(土木構造)

金 永秀
高 永熹
金 銚炯
崔 棟洙
金 相永

株式會社 韓亞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9-9 전화번호 : (02)517-9052



다이옥신

명백한 발암물질로 분류
면역계·당조절 기능저하

최근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벨기에에서 축산물 다이옥신 사건은 국제적으로 처음 있는 대규모 축산물 안전사고이다.

농림부는 벨기에 정부가 다이옥신에 오염된 닭고기 계란 등을 회수 폐기한다는 사실을 지난 5월 31일 외신보도를 통하여 인지, EU농무관으로부터 이 사실을 재확인 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벨기에 산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낙농제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 조치하고 있다.

이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WTO와 FAO에서도 아직 이렇다 할 안전성 기준이 없으며 전세계적으로 명확한 검사기준을 설정한 나라가 없다.

다만 WTO는 지난 90년부터 다이옥신 1일 인체흡인 허용량을 사람 체중 1kg당 10 picogram(1조분의 1단위)으로 정하였으나 98년 5월에 1~4 picogram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면 다이옥신이 무엇인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다이옥신(Dioxin)은 염소화합물의 연소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성물질로서 디아크디벤조파라-다이옥신(PCDD)류의 75종과 디아크디벤조퓨란(PCDF)류의 135종 등 총 210종이 있으며, 17종이 독성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다.

98년 5월 WHO는 디아크디페닐류(PCBs, 209종)도 다이옥신

신 그룹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종류와 독성이 다양하여 PCDD기준 독성등가값(TEQ)으로 분석치를 표시하고 있다.

다이옥신은 산업공정 중 탄소함유유기물, 목제의 리그닌, 또는 유사화학물질과 염소를 함유한 PVC, 플라스틱랩, 기타 염화물을 태울 때 발생하여 공기, 소각재 등을 통하여 환경(물, 토양, 식물, 동물)을 오염시킨다.

그런데 사람은 주로 음식물이나 물, 피부, 공기를 통하여 다이옥신을 섭취하고 있으며, 다이옥신류 중 가장 독성이 강한 2, 3, 7, 8-TCDD의 경우 투여 시 체중 kg당 0.022mg이며 면역계의 기능저하, 남성호르몬 감소, 당조절 능력 감소 등의 독성을 나타내고,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그룹1(명백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이옥신은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구에서도 식품중의 잔류허용한계를 설정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1일 섭취허용량으로 체중 kg당 일본, 영국에서는 10pg, WHO는 1~4pg으로 정하고 있고, 미국은 축산식품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1ppt(1pg/g)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잔류허용한계 설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농림부는 다이옥신 검사를 위한 특수장비 및 시설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다.

1. 공공장소의 매너

- 전철 혹은 전철역
- 전철에서 가장 위험받는 5대 주태

- 젖은 우산
- 도어맨(금방 내리지 않으면서 출입문 앞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
- 사자머리(긴 머리를 흔들며 상대방의 머리를 쳐대는 행위)
- 룽다리(복잡한 전철 속에서 다리를 쭉 뻗고 앉는 사람)
- 인간하수구(독육 안해서 나는 악취, 싸구려 향수 냄새 등)

- 그 외에도
- 큰짐을 갖고 만원 전철에 오르는 사람

- 헤드폰 밖으로 음악이 들릴 정도로 볼륨을 올리는 음악 애호가
- 전철역 구내에서 골프 연습하는 사람 등도 추태 행위

-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문

- 급한 사람을 위해 에스컬레이터 한쪽 편을 비워두는 것이 예의

- 엘리베이터는 먼저 탄 사람이 구석으로 들어가야 함
- 문을 열고 들어선 뒤 한번 뒤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

- 화장실, 공중전화

- 화장실 밖에서는 한 줄로 줄서는 것이 여러 모로 편리함
- 기다린 시간이 긴 사람이 먼저 이용할 수 있다는 공정함
- 악취를 맡지 않아도 된다는 쾌적함

- 공중전화 기본은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이 되 보는 것
- 통화는 요점 중심으로 간단히 하여 뒷사람 배려

- 극장, 전시장

- 극장에서는 소리내며 음식을 먹어서는 곤란함

- 영화내용에 대해 소리내어 평론하는 것도 좋지 않음

- 전시장에서는 이야기 할 경우 작은 소리로 해야 함
- 큰소리로 감탄하거나 전문가인 양 크게 해설하는 것은 금물

- 비행기 내

- 여승무원에게 경멸을 당할 수 있는 10가지 사례
- 양말을 벗는 것
- 물 한잔시킬 때도 꼭꼭 반말하는 경우

- 기내복도에서 과감하게 흡연하는 것
-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 빈자리를 모두 내 것인 양 사용하는 것

3.4.3. 시공방법

(1) 준비공
투입장소의 구역표시 및 위치표시는 장내에 깃발을 부착한 깃대를 설치해둔다. 위치결정은 트랜싯(transit), 광파측거의나 육분의 및 테이프 등으로 실시한다.

투입구역의 설정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사석법선을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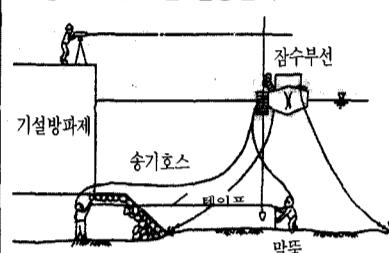


그림 3.4.4 사석법선의 설정

(2) 비탈머리선 및 비탈끌선을 설정한다.



그림 3.4.5 비탈머리선 및 비탈끌선의 설정

(3) 비탈머리 및 비탈끌에 표지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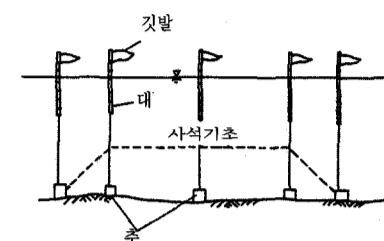


그림 3.4.6 표식설치

(4) 표식위치를 점검하기 위하여 육상의 기준점 등에서 위치확인 측량을 실시한다.

설치된 표식은 석재를 정확한 위치에 투입하기 위한 중요한 표적이므로 이동, 파손 및 유실 등의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해상운반

일반적으로 사석은 공사시공현장에 도착한 값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석재집적기지(스톱야드)에서 직접 해상운송하는 일이 많다. 운반선은 거트(gut)선이 대부분이지만 소규모 공사에서는 태선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2)-① 육상운반

석재의 산지가 적출장소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적출장소까지 덤프트럭으로 운반한다.

(2)-② 적하 이동

공사현장·사석투입 장소의 수심이 거트선의 흡수보다 얕을 경우에는 앞바다에서 태선에 적하를 옮긴다.

(2)-③ 해상운반

사석을 옮길 태선을 공사시공장소 까지 예항한다.

○ 비밀이야기나 남을 흥보는 이야기는 삼가

□ 대화시 유의해야 할 사항

○ 얘기를 하자마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말 것

○ 질문은 적절히 하고 상대

방보다 말을 적게

○ 상대편 말을 끊지 말 것

○ 자기회사(집단)에서만 쓰

는 표현이나 난해한 전문용어는 피할 것

○ 대화뿐만 아니라 자세와

시선에도 신경을 쓸 것

4. 교통매너

○ 기본적 교통매너는

-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

- 차도에는 내려서지 말 것

- 길을 걸을 때 타인의 통행

을 방해하지 말 것

- 버스좌석을 동료·자녀를 위

해 미리 맡아두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쓰레기를 차 밖으로 버리지

말 것

-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을

할 것

- 끼어드는 차에게는 양보하

기

- 차선이 적을 때에는 서로

한번씩 양보하기

- 고장난 차 발견시 바쁘지

않으면 도와주기

- 제대로 주차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뒤 운전하기

문화시민 생활윤리

글로벌 에티켓

1. 인사의 예

1) 사석

2) 대화

3) 교통

4) 전철

5) 공공장소

6) 출입문

7) 화장실

8) 전화

9) 출장

10) 출국

11) 출국

12) 출국

13) 출국

14) 출국

15) 출국

16) 출국

17) 출국

18) 출국

19) 출국

20) 출국

21) 출국

22) 출국

23) 출국

24) 출국

25) 출국

26) 출국

27) 출국

28) 출국

29) 출국

30) 출국

31) 출국

32) 출국

33) 출국

34) 출국

35) 출국

36) 출국

37) 출국

38) 출국

39) 출국

40) 출국

41) 출국

42) 출국

43) 출국

44) 출국

45) 출국

46) 출국

47) 출국

48) 출